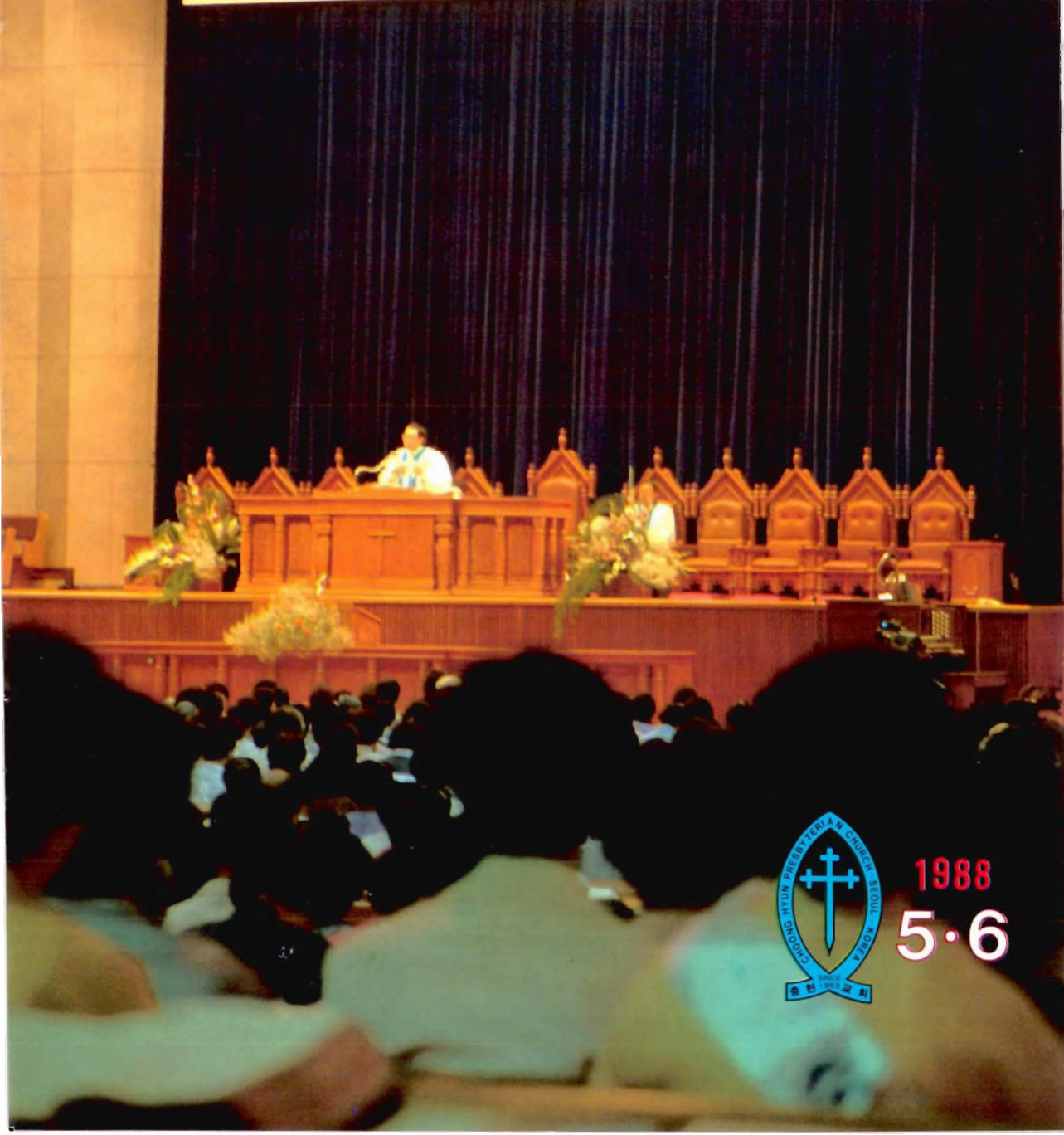


월간 충현

영적 각성·예수께 헌신 시작 / 일전
총 해 작 전
일시: 1988. 6. 6(월) ~ 7. 15(금)



1988
5·6

친애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서한

이 종 윤
(위임목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위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앙원하면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충현교회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임한 지 벌써 8주가 지나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성심껏 심방하면서 믿음의 향기도 음미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싶지만 아직도 동서남북을 분간키 어려워 바라는 마음만 애절할 뿐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여기에 공개 서한을 띄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여,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를 믿음의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이 라면 지금 서울의 시각은 게오르규의 25시요, 제 7요일이 지난 8요일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치너 비유에서 신랑이 왔으나 기름 준비가 안되어 허둥대던 다섯치너처럼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가라지를 가라지인줄 모르고 키워왔고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고 한밤을 지낸 야곱처럼 현대인들은 오늘의 문명에 대한 허탈감과 초조감에 온통 변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기계를 돌리기 위하여 그 앞에서 노예가 되어 버린 모습도 우습거니와 알도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용감한 신세계(Brave New World)가 농담이 아니었다는 데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나 장애인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들이 우리가 살고있는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9월이 되면 그토록 기도하고 바라던 예배당 헌당식과 수많은 기념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웬지 그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 혼자 목놓아 실컷 울고만 싶은 심정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으니 웬일일까요? 국민적 일체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여러분의 수고와 충성이 모자라서도 아니라면 이나라 국민이요 충현의 성장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제 마음깊은 곳에 왜 이토록 무겁고 슬픈 고통이 앙금처럼 스며들고 있을까요?

오늘날 동서를 막론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본연의 사명은 점점 퇴색해가고 열매 없는 가지와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노엽게 해드려 그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하여 있는 것이 우리들 주변의 형편이라면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을 치솟는다 해도 우리는 기쁘기 보다는 울어야 하는것이 당연하겠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던 우리 주님이 길 옆에 늘어선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동정어린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형제의 죄를 자기 죄처럼 회개하라고 배운 우리가 형제들의 과오와 비뚤어진 신앙을 비롯거나 무관심해 서야 어찌 모범적인 교회 성도라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민족앞에 못다한 사명을 이제는 통감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아세아교회 앞에 이 시대에 마땅히 외쳐주어야 할 그 진리를 못다 전해준 사명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책임을 지주어야 합니다. 자기만 의인인 줄 알고 로템나무 밑에 앉아 채념에 빠진 엘리야처럼 누구를 원망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교만한 심정은 더욱 금물이며, 썩어서 쓰러진 고목처럼 사람들의 발길에 책임받고 수모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를 위로해야하고 우리 민족도 위로하고 작은 실패에 의기소침하고 뒤로 물러서있는 교회들에 계도 위로와 힘을 부어주어야 하며 여러분 자신은 구름때같이 앞서간 성도들의 함성소리를 들으면서 좌절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모처럼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한국교회에 더우기 100년의 피뿌린 역사의 꽃을 피워보려고 새벽이슬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생각지도



않은 북풍한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탄의 강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이김은 충현 가족의 힘만으로부터는 힘이 모자라서 한국의 3만 제단이 한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역대하 7장 14-1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각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교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시고 아세아 26억을 구원해 달라고 몸부림치시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밤낮으로 고통중에 울부짖는 잃어버린 형제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그리고 매맞고 억울해서 땅을 치고 있는데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귀한 말씀을 자유롭고 은혜스럽게 듣고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감사찬송이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울겠다는 말씀입니다. 편지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충현교회가 진정으로 이 시대의 모범적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만 불비례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평강을 빌면서 충현을 위하여 쉬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1988. 6.

주안에서 여러분의 목사 이 종 윤

영적각성. 예수께 헌신

홍해작전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작전을 명령하셨다. 그 이름을 홍해작전이라 명명했다. 홍해작전은 구태의연한 죄악의 삶으로부터 뛰쳐나오는 출애굽의 작전이요 홍해 앞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영적 각성의 작전이요 홍해를 건너는 절대신앙, 절대충성, 절대순종의 작전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제로 시작된 홍해작전은 6월6일(월)에 시작되어 7월15일(금)에 완료한다. 40일 동안 새벽기도회와 금요일 금식기도, 일일3회 기도, 성구 암송등을 작전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각 지회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수행된다.

새벽기도회는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제직 및 온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금식기도일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곡기를 끊고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께 통하고, 일일3회 기도는 새벽과 점심시간과 저녁5시, 3차례에 걸쳐 12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매일 한 두절의 카드로 배포된 성구를 암송하고, 이 모든 결과를 승전판에 기록하여 구역에 제출한다.

성도를 수송하기 위해 승용차는 물론 유조차, 봉고, 트럭, 삼륜차, 영업용 택시와 버스 등 1일 300여 대가 동원되고 멀리 인천, 부평, 금산, 광능내, 의정부, 수원, 안양등지에서 오는가 하면 교회내에 잠자리를 정한 분도 200여 명이며 교회 옆에 방을 세낸 자, 여관에 투숙한자, 천지 입에 임시 동거하는 자 등 갖가지 모습으로 임하고 있다.

직장으로 바로 갈 분들을 위해 매일 200여 명의 식사가 제공되고 새벽잠을 설친 교우들을 위하여 떠끈한 차가 제공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300여 명의 찬양대의 새 노래는 이른 새벽을 열고, 이종윤 위임 목사님의 활확산처럼 뜨겁고, 폭포수처럼 퍼부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은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시들은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어 3천여명의 성도들은 불신, 불의, 불충의 죄를 자복하며 거대한 기도의 불도가니를 이루어 각 심령은 물같이 녹는다.

녹아진 심령에 쏟아 부어진 은혜는 성도들의 얼굴에 화안한 미소의 꽃을 피운다.

이번 홍해작전을 통하여 온 충현의 성도가 한마음, 한지체 살아있는 생세포로서 다시 태어나 개인과 교회,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민족 복음화의 핵이요, 불씨로 다시 불붙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 16권 3호 통권 제 146호

五대목표
천국일군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건축

위임목사님 목회서신 / 친애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서한...	이종운...2
홍해작전 보고	편집실...4
특집 / 기독교와 가정윤리.....	이종운...6
이달의 기도	나희주...10
충현칼럼 / 자라가라	조영길...11
오늘의 정치적 상황과 한국교회	김차생...12
가정탐방 / 5남매의 전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편집실...14
성도의 건강관리 /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눈병에 대하여	이영세...16
기독교 문학 산책 / 죄와 벌.....	편집실...18
시편강해 ① / 복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김창인...20
평신도를 위한 신앙강좌 / 신앙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이성근...22
독자란 / 소박한 행복.....	이영희...23
사랑의 대화.....	노문환...23
추천도서 / 오묘한 육체.....	김영구...24
용어해설 / 회심과 회개.....	이양우...24
교회사 순례 / 중세 신앙시대	김연이...26
교회소식.....	편집실...28
충현도서실 안내	도서실...31
선교지 소식	세계선교위원회...32
교우동정.....	편집실...34
교회행사 • 편집후기	편집실...36
사진으로 본 홍해작전	편집실...38
약속과 축복의 현장	편집실...40



□ 표지 사진 설명 □

홍해작전은 영적각성, 예수께 헌신, 절대신앙, 절대종성, 절대순종 운동이다. 이 작전을 통하여 각자가 가정과 교회,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핵이요, 생세포로 거듭 태어나기를 갈구한다.

표지촬영 : 김중태 집사

기독교와 가정윤리

이 종 윤

(위임목사)

우리는 도덕이라는 말, 윤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도덕이라 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할 때는 서양의 도덕이나 동양의 도덕이, 또는 20 세기의 도덕이나 19 세기의 도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적게 자식들만 먹는 도덕이 있다고 합니다. 귀한 부모님의 시체를 땅에 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중요성과 기독교 가정의 윤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가정의 중요성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그 이유는,

(1)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며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의 견해에 의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생긴 것이 아니고 야메바로부터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는 진화론자의 입장이라면 가정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영국에서부터 의학자들이 연구한 인공수정에 의한 실험관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

듯이 사람을 생산해 내는데 기계로 생산해 내겠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새것으로 바꿔 끼우는 것처럼 인간이 고장나면 바꿔 끼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는 가정 혼란, 세계 혼란, 도덕적 혼란, 윤리적 혼란이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가정을 사회집단의 기본단위로 보고 사회학적으로 부계 사회나 모계 사회나 하며 토론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토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앞서 있다든가 아내가 남편보다 우수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남녀 평등'이란 말이 오늘날 가정을 매우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는 분명히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남자가 여자와 같거나 여자가 남자와 같다면 하나님이 구태어 남자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와야 되고 여자는 여성다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다와지고 여자가 남자다와질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양복을 입고 다니고 바지를 입고 다니고 남자가 여자 모양으로 긴 머리를 하고 다니니 자기 위치를 상실하므로써 오늘날 사회에, 나라에 혼란이 계속됩니다.

공산주의를 제창한 칼 마크스는 또 아주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집단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동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가정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고 또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제도를 인간이 파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

시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2) 가정은 영적 사역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2절 이하를 보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를 잘 복종케 하며 가정을 잘 꾸미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가정이 든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영적 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뻘래야 뻘 수 없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가정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므로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등식이 있는데 문제의 가정은 문제의 교회를 만들고 은혜스러운 가정은 은혜스러운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면 그 열심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그 봉사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가정은 복음전도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정은 자녀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학교일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피차 배울 수 있는 인격의 수련장입니다. 가정을 통해 인내하는 법, 관용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왜 피차에 협력을 해야 되는지의 모든 덕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가정제단을 쌓았습니다. 든든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세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4) 가정은 건강한 사회형성의 기본 단위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요 가정이 곧 질서입니다. 가정에서 윗 사람을 높이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생활해 온 사람이어야 사회에 나가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이 가정질서를 잘 지킨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질서가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만큼 공동질서에 무딘 백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데 공동질서를 지키고 공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매우 약한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5) 가정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 계명은 분명히 가정에 대한 계명인데 7 계명, 8 계명, 10 계명도 가정에 대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간음함으로 자기 가정도 망하고 남의 가정도 망한다는 뜻이니 가정 문제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도둑질함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니 가정 문제입니다.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을 탐내지 말라」 역시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 모두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네가지 계명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으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2. 성경적 가정의 윤리

이렇게 중요한 가정의 기독교적 윤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1)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모시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편을 주인(主人)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사회 중심적인 가정 이해는 가정을 사회의 진화된 제도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생긴,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건전해지고 깨끗해지고 활발해지고 침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2)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문화명령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사용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인정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가정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가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적은 사회일수록 점점 쇠퇴해집니다. 가정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사회적 책임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3) 삶의 원리가 성경위에 세워진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치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려니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표준을 두지 말고 성경의 원리에서, 성경말씀에서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천년 전에도 진리이고 지금도 진리이고 영원히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에다 표준을 두고 그 표준에 의해서 살 때에 우리 가정의 원리가 바로 서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4) 인간관계를 바로 맺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인간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① 부부관계를 바로 맺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자식관계라고 하는데 일차적인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다 놓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까 많은 사람들이 '내조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는 조력자, 그 옆에서 잘 보조해 주는 역할이고 남자가 주(主)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뜻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갈비뼈 하나가 뿔어졌습니다. 허파에 바람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갈비뼈 하나가

뿔었으니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갈비뼈 하나가 빠져 나가서 사람구실을 못하는데 돕는 배필 갈비뼈가 찾아와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의 뜻입니다. 빠져나간 갈비뼈가 빠져나간 부분에 합쳐질 때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입니다.

빠져나간 갈비뼈가 저 혼자 뛰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도 큰 일이고 빠져나간 갈비뼈를 채우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이것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상호 보충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완 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첫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느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정도만 사랑하면 그 남편은 만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과를 깎아 가지고 입에 넣어 주면서 애교를 부릴 때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 누군 못하겠습니까?

아내가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둘째, 복종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랑의 관계일뿐 아니라 피차 복종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아내만 복종하라 하지 않고 피차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②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물질도 애정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정에 가정의 기초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기초이십니다. 사랑도 하나님만 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만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 의 기업이라 하였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영접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중국에 ‘홀어진 새 등지에는 온전한 새 알이 많지 않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등지가 비뚤어져 있으면 새 알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 같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데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 놓는다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면 자녀들을 훌륭하게 공부를 시켰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로 키운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상으로 신앙교육에 전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무겁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 드리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복종,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복종이 종교적인 순종을 가져 옵니다.

부모를 잘 섬긴다는 말은 또한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소중히 가꾼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유산, 문화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③ 다른 가족과의 관계

다른 가족은 형제, 시부모, 친척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만악에 시어머니와 문제가 있다면 죄가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있고 용서도 있고 관용도 있고 이해도 있고 사랑도 있고 협력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보아야 합니다.

3. 성경적인 이상형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일곱가지 수칙

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②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③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④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⑥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⑦ 성경 말씀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 지키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결 론

오늘날 가정이 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허다한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정신문제, 심지어 교회문제까지 야기시켰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이와같은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소위 여성해방이라는 운동이 우리 사회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정적 혼란도 가져왔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위로하고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식을 인간대우 함으로 주변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도 엄청나서 갈등과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존중히 여겨주고 소중히 알아주고 또 한번 아들 딸을 쳐다보면 그 생명들의 눈동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나를 고아원에서 키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양로원은 아니라 할찌라도 뒷방에 몰아넣고 양로원보다 더 캄캄한 방에 얹혀 놓고 외롭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문제를 이번 기회에 깊이 점검하여서 그리스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하시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〇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 주시어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언약하신 모든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행함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기 보다는 나의 것만을 추구하며 나의 의를 찾기에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아직은 질그릇과 같은 몸통이 하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유별나게 가꾸고 닦는 일에 온갖 정성과 생애를 허비하는 한심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자까지도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지회를 긍휼히 여기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세워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맡겨 주신 귀한 책임과 직분을 바로 감당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속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르심에 합당한 분량에 자라 즐겨 순종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충현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소식이 충현제단으로 부터 전하여 질 때 온 장안과 이나라 이민족, 세계를 향해 복음의 사역이 확장이 되게 하옵소서.

새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모든 남녀 교역자님을 성령과 권능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불드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옵소서. 영적각성과 예수께 헌신을 위해 홍해작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홍해 작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우리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 한 생명도 낙오자가 없이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 세대에 대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기쁨과 감사속에 이일에 동참케 하시고 풍성한 가운데 완공하여 9월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만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되고 이나라 이백성 온 교회가 하나되며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되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이땅에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 희 주

(안수집사)

자라가라!

조영길

(목사·교구위원장)

자라가라!

5월은 푸르고 6월은 짙푸른 계절이다.

푸르름은 생명의 색깔이요 짙푸름은 왕성한 생명력의 표현이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 특징이다.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죽었기 때문이다.

성장의 계절에 한껏 자라나야 가을에 충실하고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기대하게 된다. 자라나지 아니하고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인격도 자라나라! 고 말씀하신다.

○ 자라 가라(벧후 3:18)

○ 무성하게 자라라(막 4:8)

○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엡 4:13)

그렇다. 성장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령계에도 있는 것이다. 푸른 계절, 성장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신령적으로 무성하게 자라나면 좋겠다. 우리 충현교회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원로목사님, 새위임목사님 새 교회당 완공과 헌당 그리고 교회설립 35주년 세계 선교대회 이 큰 변화와 새로운 역사의 도전에 선 것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역사는 우리 교회가 더욱 크게 자라날 수가 있는 기회라고 본다.

그러므로 푸른 계절, 성장의 계절, 생명력의 활동무대인 이 5~6월을 맞이하여 우리교회가 자라나고 발전해야겠다.

성장에는 두가지가 있다.

겨자나무의 성장이 있고(마13:31-32) 누룩의 성장이 있다(마 13:33)

전자는 외형적이며 숫적이고도 양적인 성장을 말하

고, 후자는 내면적이고 질적이고도 신령적인 성장을 말한다. 교회의 이상적인 성장은 이 두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겨자나무가 자라나듯 양적인 면에서도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고 누룩과 같이 반죽을 다 부풀게하듯 질적이고도 영적인 성장도 꼭 있어야겠다. 씨 한톨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나 무성하여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고 예수님은 생명과 성장의 법칙을 말씀하여 주셨다(막 4:3-8).

우리 충현교회가 이제 35년의 연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35세 하면 한창 일할 때이다. 30배의 열매만 맺으면 되겠는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겠다.

5~6월은 4 계절 중에 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름도 아니다. 그 중간이다. 봄도 여름도 같이 존재하는 이상적인 계절이다. 그러므로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성장에는 「3대원리」가 있다.

제1원리. 씨를 뿌리는 것 곧 심는 것이 있고

제2원리. 물을 주는 것이 있고

제3원리. 자라나게 하는 것이 있다(고전3:6)

바울은 심었고(전도자) 아볼로스는 물을 주었으니(목회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고 하였다. 그렇다 우리 교회가 이성장의 계절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총동원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위임 목사님 이하 모든 사역자들이 열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물을 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해 주실것을 믿는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벧후 3:18) 〇

오늘의 정치적 상황과 한국교회

김 차 생

(장로·출판국장)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련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8·15 해방이후 부자연스럽게 40여 년 정치적 안정을 누려오던 대한민국은 6·29 선언이후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었다. 그 결과 예상을 뒤엎고 야당이 여당보다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여당의 정치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버렸다.

이와같이 정치적 판도변화에 국민들은 어느 정도 협상과 대화정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인 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남북문제에 대한 주장과 대처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문화의 불모지에 당겨진 노사분쟁의 심각한 불꽃현상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공화당 정권의 유신정치를 직접적으로 대모를 통해 의사를 표시해 왔다고 할수있거니와 그 절정이 제5공화국의 종말을 고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의 구호는 과격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힘에 의하여 침묵으로 강요되어 왔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리를 요구하는 민주시민운동을 성취하게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되고 제6공화국이 출범한 오늘에 종교계와 학생계층의 일각에서 남북문제를 들고나와 정부와 집권여당은 물론 온 나라 안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에 일말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시각은 우리들을 경악케하고 있는바, 이들

의 주장을 항목별로 요약한다면,

첫째, 대한민국 40년사를 처음부터 부정의 윤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한국을 남북으로 분단시킨 책임은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미국측에만 전가 시키고 있다는 점.

셋째,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제국주의적 점령군대라는 점.

넷째, 6·25사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하도록 사전에 유인하는 작전을 계획했다는 점.

다섯째, 여수·순천반란 사건은 부패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민중의 거룩한 항쟁이었다는것.

여섯째, 북한의 김일성은 민중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적인 선정(善政)을 베풀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의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도.

일곱째,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방압소 거부와 미군철수를 요구,

여덟째, 한국군은 미국의 싸구려 용병이라는 것.

아홉번째, 만약 가능하다면 적화통일도 불사한다는 것.

이것 이외에도 운동권 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 윤리는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심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폭력·방화행위를 볼때 바로 폭력혁명의 전주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를 말할때, 우리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구분한다. 진보진영이라 할때 세계교회협의회(W. C. C.) 산하 기관으로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 K. C. 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교회의 영적성장과 복음전도 확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회구원적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함으로써 자연히 현실정치에서 야기되는 온갖 부조리와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능하면 어떤 정치적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왔다.

그리고 목적을 같이 하는 어떤단체가 있다면 비록 그 단체가 비 기독교단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KNCC에 속한 일부인사들은 기독교의 역사적 신앙이라든가 또는 교리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개인구원을 도외시한 현실참여와 주로 정치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바 최근 통일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수차 표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남북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민족의 최대과제이며 소망이기 때문에 의당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으나, 대화와 협의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므로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다루어야 할 고도의 문제이지 교회가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치우쳐 북한의 전략에 유익을 줄만한 구실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민족공동체가 소망하는 통일조국이 하루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할것 뿐이다.

그러면 보수진영 교회는 어떠한가?

보수진영교회는 막강한 수의 교인과 교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한국교회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백성의 아픔이나 갈망에 관심조차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보수교단을 맑고 깨끗하게 이끌고갈 참된인물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의식있는 교인들간에는 오늘의 보수 교단은 지도원리도 없고, 지도능력도 결핍되어 있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다.

다시말하면 교회가 영성(靈性)을 상실했다는 말이다. 보수교단에 속하는 일부 지도자들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죄는 물론 사회의 부도덕성과 정치지도자들의 죄를 얼마나 과감하고 분명하게 나팔

을 불었는가 말이다. 오히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반그리스도적 처신을 했다는 말에 무엇이 라고 대답할수 있겠는가. 또 권력에 아첨하는 일들은 없었는가? 한국보수교회는 이제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선지자적 영성과 권위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보수교회는 안일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할 때다.

앞서 지적한 오늘의 학원가에 일고 있는 이슈와 남북문제 9개 항목들을 무조건 급진 자유주의 학생운동으로만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보수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학들 마저도 이와같이 점점 오염되어 가고있는 현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이제 보수교단이 해야 할 일은 끝없는 교권 싸움을 청산하고 민족공동체의 선지자적 권위회복을 위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냐? 좌경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한국의 보수교회는 이와같은 엄숙한 역사적 명제 앞에 이 나라 겨레에게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앞에 당당히 섰던 아모스·미가와 같이 말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교회가 민족앞에 지금과 같이 현실도피 내지는 야합하거나 무사안일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 머리털 깎이운 삼손과도 같이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도태 당하고 말지도 모른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감사하게도 우리 총현교회가 12가지 문제를 걸어놓고 새벽마다 3,000여명의 성도가 모여 홍해작전 기도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시의에 적절한 의미심장한 운동이라 하겠다.

우리 총현교회가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불의와 불충과 불신의 죄악들이 남이 아닌 각자의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미스바 운동으로 승화될 뿐 아니라 이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강한 소망을 주님께 서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운동이 나라 안과 밖으로 확산되어 정의가 이땅에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문계구름처럼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②

5 남매의 전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최명한 장로님
양승희 권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제도요 축복의 제도이다.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무르익고 흘러 나가기를 기뻐하신다.

사랑으로 뭉치고 어려울 때에 기도로 돕고 함께 선 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5남매의 5가정이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생활하는 이색 가정을 탐방하였다.

철 대문을 들어서니 오른쪽에 곧 기도실이 있었다. 35년 전에 고 양춘선 장로님(최명한 장로님의 장인)과 박봉주 권사님 내외분이 신앙재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당에 예배실을 지으셨다. 그 때부터 이 예배실에는 매주 금요일이면 초교파적으로 100여명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낮예배와 철야기도를 드리고 있다.

예배실 앞쪽에 박봉주 권사님의 3남(양승인, 송미은 집사, 광현교회)의 집이 붉은 벽돌 양옥으로 정교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서있었고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가니 오른쪽에는 장남(양승용, 원길자 집사)의 집이 흰 옷을 입고 화사하게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왼쪽에는 세 따님의 붉은 벽돌 집이 단정하게 서 있었다. 약간 경사진 곳에 나란히 서있어서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였다. 맨위에 위치한 장로님 맥을 들어서니 화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검소하고 소박하여 마음을 편케 해 주었다.

함께 모여 살게 된 동기는 장남 양승용 집사님(원길자 집사 夫) 장자에게 물려준 유산인 대지를 아우들에게 분할 양도하여 아버님의 유지(遺志)인 함께 모여 살면서 화목하기를 바라시던 꿈을 이루어 현재 박권사님의 장남과 3남, 장녀, 차녀 3녀가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살고 계셨다. 두제의 집을 더 지어서 미국에 있

는 4녀와 5녀가 들어와 함께 살기 위해 터를 닦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2남5녀의 가족(차남은 밖에 사임) 3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보기드문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형제라도 모여 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있었으나 막상 함께 살고보니 어려울 때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대가족 속에서의 어머니 공경은 어머니의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본받아 순종하여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효(孝)라고 하신다.

박봉주 권사님은 16년 전 지병으로 왼쪽 몸이 불편하신데도 하루에 성경을 4시간 씩 읽으시고 하루 세 차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므로(직계 자손만 42명)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운동이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데도 건강하시고 얼굴은 홍안이요 마음은 어린 아이같이 맑고 고와서 74세의 연령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답고, 얼굴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라고 따님은 어머니를 자랑하였다. 타인에게는 너그러우시나 자녀들에게는 엄격하시고 말씀 중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므로 어찌하든지 온 자녀들이 이 신앙의 대를 이어야겠다고 다짐하셨다.

부흥회, 예식, 각종 모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느라고 수고하시는 큰올케는 효부상을 받을 만한 좋은 며느리라고 양권사님은 격찬을 보냈으며 막내 올케도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고 막내 올케의 마음도 살피 주셨다.

최 장로님의 자녀교육은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도록 독려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결길로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 주었으나 지금은 다 외국으로 나



가있고 출가하여 편지로나 전화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격려하며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한다고 하셨다.(장남 진영씨는 결혼하여 미국에 가 있고 장녀 진이씨는 출가해서 평창동에 살고 있고 3 남 진우씨는 뉴욕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가훈은 장인이름이 살아 계실 때 늘 화목을 강조하셨고 또 신앙인은 사랑으로 하나되고 집안일이나 회사 일이나 어려울 때 화합해서 힘이 되어야 하므로 「가화만사성」이라는 방향으로 가훈을 삼고 있다.

홍해작전에 임하는 가족의 자세를 여쭙 보았을 때 '이 일은 위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최적으로 시행하신 일'로 온 교우가 기쁘게 참여할 뿐 아니라 장로님 가정도 새벽 기도회부터 열심히 참여하고 특별히 성전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더 많은 기도가 요청된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이셨다.

최 장로님은 성전 건축을 맡을 당시를 회상하며 잠깐 간증을 하시었다. 84년까지만해도 홍화 공업이 건축을 하지 않고 철골조만 관계했는데 최 장로님이 부임하시면서 건축이나 토목도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던 차에 86년도에 충현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벽차기도 하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는 염려도 되어서 가족 간에도 할것인지 말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을 지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거역하겠는가. 입자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하기로 결론을 짓고 온 교우들의 기도를 힘입어 시작 하였더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되었고 회사도 많이 키졌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면서 기뻐하셨다.

특히 회사의 불신 간부들의 입에서도 좋은 일을 볼 때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여간 감사하지 않고, 남은 일은 성전건축 완공 후 후유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전국 40~50개의 현장을 돌아보느라고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 앞에 여간 송구하지 않은데 우선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고 둘째는 직원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과업이라고 하셨다.(현재 월요일 12시에 신자대상으로 예배를 드림)

울안에 사는 가족들의 공동 기도 제목은 신앙문제가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이 대한제도와 홍화공업을 잘 성장시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 하셨다.

위임 목사님이 심방오셔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가정을 중요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현가족의 일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셨다.

소탈, 솔직하시고 담백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의 전송을 받으며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눈병에 대하여

이 영 세

(장로·새신자부부장·장학위원회위원장)

서양 의학이 기독교 선교의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벌써 1 세기가 되었다. 이제 100년이 지난 현대 의학의 각 분야에서의 발전은 팔목할만 하며 여러가지 해결하지 못하였던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제하며 희망을 주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눈의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수준도 선진국의 그것과 손색없는 수준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안질환중 실명을 초래하는 눈병 또는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눈병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실명자 수는 전국에 약 12만~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17개 대학병원의 안과에 찾아온 10만 명의 환자 중에 실명 원인이 되는 안과 질환 중 백내장이 31%로 가장 높고 다음은 당뇨병, 고혈압등 전신질환 때에 눈의 변화가 약 20% 다음은 망막박리, 녹내장, 외상, 중독, 굴절이상, 선천성질환 및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등이다.

1. 백내장

백내장이란 이름 그대로 백태가 눈속에 끼는 질환이다.

백내장은 60세 이상 고령에 많으나, 최근들어 발생 연령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한 해에 20% 정도씩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백내장은 약물로 치료되지 않으며 혼탁된 수정체 백태를 빼내야 한다. 백내장 수술후에는 렌즈없는 카메

라와 같은 상태가 되어 듯수 높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여 시력을 바로 잡는데 최근에는 안구속에 프라스틱으로 만든 인공 수정체를 끼워 넣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백내장 수술도 과거에는 안구를 절개하여 수정체를 빼내는 수술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초음파 수술 즉 안구에 3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서 그속에 기계를 넣고 1초에 4만회 진동시켜 수정체를 액화하여 빨아내는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은 과거에 비해 상처가 적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후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당뇨병으로 백내장이 합병증으로 생길 때가 많은데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이 곤란하므로 백내장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물 요법을 시도하고 있다.

2. 망막박리

이 질환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시세포막(망막)이 외상 또는 불명의 이유로 떨어져 나가는 병으로 백내장 수술 후, 고도의 근시 때에 많이 발생한다. 망막박리로 진단되면 즉시 수술로서 떨어진 망막을 다시 붙여 주어야 정상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3. 사시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에 콧쪽(내사시)이나 귀쪽(외사시) 또는 눈썹쪽(상사시)으로 물리는 사팔 눈을 말한다.

사시는 어린이에게 많아서 전체 어린이의 2~4%나 된다고 한다. 어린이의 양안시 기능(두 눈으로 보는 능력)은 만6세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시는 그전에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해주어야 실명 내지는 약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시의 치료는 만3~4세로부터 안경을 써서 교정하는 방법과 수술로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

4. 녹내장

이 병은 눈의 압력(안압)이 올라가는 병으로 급성은 12~48시간 이내에 안압을 내려주지 않으면 시신경이 파괴되어 영원히 실명하는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녹내장의 90%는 만성적으로 온다. 즉 눈의 시신경이 서서히 파괴되어 이상을 느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20대 이후가 되면 3년마다 또 40대 이상이나 가족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을 때는 매년 안압을 측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녹내장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은 최근 개발된 티모롤(β 차단제) 같은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많은 약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수술요법은 과거에 시술하던 눈에 구멍을 내는 방법에서 최근에는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수술요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레이저광선 요법은 녹내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이밖에 눈속에 출혈이나 종양(혹)이 있을 때 광범위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

5. 각막 이식을 요하는 질환

각막 이식은 백태가 끼어 또는 각막염등으로 시력 회복이 불가능할 때 시계 유리 뚜껑같은 각막편을 떼내고 죽은 사람의 각막 조직을 이식하는 것이며 때때로 이것을 눈알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안과 수술분야중 각막이식 수술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실명 인구 12만~15만명 중 10%가량인 1만 5천명 정도는 각막 이식만 해주면 실명에서 광명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6. 유행성 각결막염

매년 여름이면 유행하는 유행성 결막염(아폴로눈병)과 각결막염(E. K. C.)은 아데노 바이러스가 병원이며 독감과 마찬가지로特效약이 없다.

대개 2~3주 지나야 낫지만 염증이 각막까지 이르면 영원히 시력장애나 난시로 남게 되기도 한다. 이 병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수건, 대야를 따로 쓰고 외출 후 흐르는 수도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수영후에는 맑은 물로 몸과 눈을 씻고, 또 음식점에서 물수건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7. 안약의 남·오용으로 오는 눈병

최근에 안약의 남·오용이 심각한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부산피질 홀몬제를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장기간 점안하면 안압이 높아지는 속발성 녹내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항생제 안약을 남용하면 오히려 저항력을 떨어뜨려 곰팡이에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 동자를 키우는 약, 동자를 축소시키는 약은 엄하게 다루어야 하며 안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들이 평생 흡수하는 지식의 거의 90%가 눈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고 「몸 친양에 눈 구백냥」이라는 속담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그 생기가 먼저 눈에 왔을지도 모른다.

이 소중한 눈을 일생동안 잘 보존하기 위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오기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또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때를 놓치지 말고 조기진단 치료 하므로써 실명과 질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눈이 건강함으로써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육체가 건강함으로써 그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것이며 또 건전한 심신(心身)을 가진 자마다 온전한 영혼을 간직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눈을 일생동안 잘 간직함으로써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져 소망찬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〇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편집실)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말했다. 참으로 죄를 인식하는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1.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도스토예프스키의 초기 작품에서는 당시 사회의 잔인한 환경에 희생된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인간성의 발견이라는 인도주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어두운 도시, 찢긴 생활, 고질적인 간질, 병적인 도박과 낭비, 무절제, 서구의 혁신 사상으로 말미암은 시베리아 유형형의 고난과 시련, 죽음과 삶의 갈림길인 사형대에서 느낀 공포와 죽음의 심연, 이러한 체험을 통한 그의 후기작품은 깊고 울창한 숲과 준봉을 이루게 했다.

특히 4년 동안의 시베리아 감옥에서 단 한권 허락된 책인 성경을 통하여 그는 고통을 통한 구원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신앙에 눈 떠 젊은 시절의 급진주의를 버리고 기존질서에 대한 존경심과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을 그가 중한 죄라고 믿었던 바로 그 죄에 대한 고난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후 그의 작품 속에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심오한 함축성과 신앙과 신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계속되며 기독교적인 이상을 삶의 의미로 나타냈다. 인간의 하나님과의 우주적 갈등을 통하여 죄와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갖는 관계에 골몰했다.

그러므로 「인간 내부에 있는 또 하나의 인간」에의 탐구를 통해 그것을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문제로 끌어 올렸다.

그는 조카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 작품 「백지」의 주된 의도는 이 세상에서 오직 아름다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문학 목적을 위하여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자유를 잃은 고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이상적인 이기심에 지배될 수 있다고 믿는 과격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풍자, 아무런 진리도 절대적이지 못하며 모든 선도 상대적인 세계에 극도로 격리된 한 인간에 대한 심원한 분석을 밀도있게 다루어 나갔다. 그리하여 의지와 이성(理性)간의 근본적 갈등에서 현실세계와 마음에 드는 이상세계 속에서 뒤죽박죽이 된 인간의 정신생활에 중점을 둔 주인공의 자기 탐색의 방법을 도입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과 인간들에 대항하는 극악한 죄를 다루면서 동시에 종국에는 정신적 순례를 통해 자신을 속죄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전개한다.

그가 체험한 인간 정신의 고민과 투쟁은 인류의 뿌리깊은 영혼의 드라마이다.

2. 「죄와 벌」

가정교사 자리를 잃고 학비가 없어 대학을 도중에 그만 둔 23세의 수재 라스콜리니코프는 절망적인 빈궁과 비참을 느끼며 사회의 모순을 보고 격분한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들이 무참히 썩어가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향을 팔아 축재하는 사회의 이(蠶)와 같은 존재들의 모순을 보면서 무신론자이며 전형적인 니힐리스트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비범한 사람(超人)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요구할 수 있고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도덕률이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진리나 정의의 위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결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 마리의 이를 죽이고 그 돈으로 보람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이 일을 감행하는 데 주저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공리주의적인 설정을 하게 된다.

범행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이론이 뒷받침된 강력한 자아의식을 가진 주인공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은 자기 결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겨 노인을 살해한다. 그러나 때마침 나타난 노파의 여동생마저 도끼로 쳐 죽인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당혹이었다.

“한 마리의 이를 죽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죄의 탄로가 문제에 아니라 불안은 좀 더 근본적인 데 있었다. 그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사상에 대한 그의 양심의 배반, 이념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괴리, 노파를 한 마리의 이라고 생각했던 신념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불안, 결국 자기도 초인이 아니라 한 마리의 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가 죽인 이 한 마리가 바로 자기가 자신을 죽인 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그를 절망으로 몰아 넣은 것은 현실과 자아,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단절이었다.

그는 냉혹한 이론과 인간성과의 갈등에 찢기며 번민

과 고뇌 속으로 빠져든다.

그는 그의 사상적 파탄의 구원을 위해 창녀인 쏘냐를 찾아 간다. 쏘냐는 불행한 가정의 희생물이 되어 매춘부로 전락한 여인이었으나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의 순결과 청순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벌을 내려 악마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곧 네 거리에 나가서 몸을 굽혀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입 맞추세요, 그리고 온 누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방에 다 들리도록 ‘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쏘냐의 입을 통해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는 구원의 시광을 비로소 발견한다.

그는 물에 빠진 자의 열정으로 구원을 호소하며 쏘냐가 준 삼나무 십자가를 받아 쥐고 쏘냐에게 나사로의 부활기사를 읽어 달라고 한다.

그는 몸을 일으켜 네 거리에 나가 광장 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회회와 행복을 느끼면서 그 더러운 땅에 입맞춘다. 쏘냐를 통해 비로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한 것이다.

3. 결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무덤을 판 인간의 사상과 이론등의 패배와 파멸의 필연성, 범죄하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고독을 보게 된다. 인류 때문에 죄인이 되어 오셨으나 죄와는 상관없이 없으셨던 예수님을 쏘냐를 통해서 보게 된다.

사랑의 절정으로 라스콜리니코프의 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쏘냐처럼 예수님은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의 사유함과 평안함을 주신다.

이 소설은 결국 추상적인 이론이 인간에 가한 학대와 그것에 대한 인간성의 엄격한 보복과정을 형상화 하였으며 이성을 초월한 인간성과 종교적 심리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인간성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자아의 주장을 부정하고 인간 사상의 근본적인 오류를 설교함으로써 결국 양심, 신의 섭리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죄와 벌」은 이성과 이론에 대한 신성과 양심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복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시편 1 편 1-6절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1:1)



김 창 인

(원로목사)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에는 반드시 근심이 따릅니다. 그러나 본문의 복은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잠10:22)

또 세상의 복에는 죄악의 때가 묻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복은 죄와 상관이 없는 깨끗한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오늘은 복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살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 복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시1:1-4)

(1)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자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시1:1) 「악인의 꾀」가 성경에 세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게으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마25:26). 게으른자는 책임을 맡고 일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합니다. 둘째로, 거스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마17:17, 빌2:15). 이들은 부모를 거스리고, 나라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종을 거스리고, 하나님까지 거스릅니다. 셋째로, 음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마12:39, 16:4).

이상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악인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거스리고, 악하고 음란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복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시1:1) 「죄인」이란 말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지말라는 것을 한 자가 죄인이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도적질을 하였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간음을 하였으면 죄인입니다. 또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자는 죄인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십일조를 바쳐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기는 자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을 순종하여 복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 복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시1:1) 오만은 사람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4) 복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와 율법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1:2)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섭리하신 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실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복있는 의인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섯가지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보기를 즐거워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진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2. 복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1) 생명의 복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시1:3)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였는데 이것은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사막과 같아서 영혼을 시원하게 할만한 생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야 합니다.

(2) 점점 자라고 발전하는 복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시1:3)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싱싱하여 힘있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발전합니다. 언제나 용기가 충천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해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잎이 푸르듯이 나는 많지만 용기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하여 자라듯이 교회도 커지고 전도의 구역도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3)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시1:3) 열매는 성공을 말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그것이 되겠나?” 하였는데 가을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이처럼 성공하면 넉넉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열매가 많습니다. 요셉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3. 악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시1:5) 복있는 자와는 반대로 사막에 던짐을 받은 떨기나무 같은 악인은 처음에는 썩아 놓은 재산, 권세, 명예가 태산처럼 많은 것 같았는데 3년, 5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태풍이 한 번 불고 나니 다 날아가고 아무 것도 없어지고 욕만 남았습니다.

이기봉 선생은 생전에는 굉장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그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굉장한 것 같았으나 얼마 있다가 보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건디지 못하며 의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시1:5) 이 말씀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고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세상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세상을 떠나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주소는 강남구에 있지만 우리 인격의 주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정해야 합니다 ②

(1983. 3. 16)

신앙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이 성 근
(목사 · 문서선교사)

신자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성경과 전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천국의 신령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어 생기를 얻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읽으므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전도를 하므로 영혼이 운동을 하게 되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데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게을리하게 되면 믿음에 병이 들게 되고 성장이 멈추고 맙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전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1. 기도하므로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사귀고 친해지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는데서 이루어집니다. 밤낮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친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 놓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가운데 서로는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부자지간이라도 정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이냐 마음에 집히는 일이면 즉시 기도할 것입니다. 병이 생기면 그 병이 낫게해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

이 생기면 거기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고, 직업이 없으면 취직을 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게해 달라고, 마음이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해 달라고, 분을 잘내고 욕심이 많은 자는 그런 성격을 뜯어 고쳐 달라고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가 되는 것과 악한 것과 욕심으로 기도하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여러 모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내게 구한 그대로 주실 때도 있고 혹은 다른 형태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한 자는 반드시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자가 기도는 열심히 해 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고는 금방 다른곳으로 가 버렸다면 엄마는 아무리 과자를 아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언제 어떤 형태로 주시는가를 주의하여 살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에

게 구하면 한두 번 정도는 들어 주지만 여러 번 빌리러 가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들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번을 구하여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리 큰 일을 구하여도 허물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 번 꾸어 줄 것도 없고 큰 것을 구하면 더욱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은 그 횡수와 분량에 상관없이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가 한없이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신자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눈 앞에 계신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물산에 올라갔다가 빈손으로 내려 오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와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공중기도는 소리를 내어 하고 개인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칫 묵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대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소리를 내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자신이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를 택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내 기도소리를 듣지 못할 곳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마21:13) 또한 깊은 밤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목이라도 깊이 잠든 때에 고요히 생각을 정돈하며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쉼어질 일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즉시 일어나서 잠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기도는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말할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래만에 친정에 가거나 친한 친구를 만나면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듯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기도도 40일을 밤도 먹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긴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짧은 기도도 요긴합니다. 하루 일과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한 마디의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항상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무릇 성도는 특별히 성전에 올라 가서 오래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를 끝낼 때는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요14:13).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인은 온갖 권리를 빼앗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특권이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 주십니다. 은행에 저축한 것이 없는 자는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중에 은행에 많은 돈을 저금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이름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다음호에 계속) ㉠

「소박한 행복」

이 영 희

(집사 · 유년부 교사)

해마다 5월이 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갖가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런 형식적인 행사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보다는 생활 가운데서 소박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손주들에게 사랑을 한없이 주시고 싶어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잘못하여 매를 들 때면 언제나 어머니는 손주들의 편을 들어 주셔서 때때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속이 상할 때가 있지만 아이들은 할머니가 「우리들의 방패」라 하면서 할머니를 더욱 따르게 되고 어머니는 손주들의 이런 행동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십니다. 또 토요일이 되면 할머니가 교회에서 잡수실 간식을 사다 드리고 주일에는 예배가 끝나면 할머니가 계시는 소망부에 가곤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의 표현과 작은 관심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시는 것을 봅니다.

가끔 어머니가 잘 만드시는 만두와 빈대떡이 먹고 싶다고 졸라대면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작은일 하나 하나에 참여하실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관계에서 참된 사랑의 나눔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늘 배우게 됩니다.

일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기력은 날로 쇠하여져 가지만 진실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온 집안 식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된 것을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와 모든 일에 동참하며 아이들의 소박한 정성과 사랑을 함께 쏟아부어 드리고 싶습니다 ①

「사랑의 대화」

노 문 환

(장로 · 소년부부장)

나는 매우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유·소년기를 보내며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척 어렵고 무서운 분으로 기억된다. 이런 나의 체험 때문에 나의 아들들에게는 좀 부드럽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취지기를 바랐고, 나름대로 애를 쓰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아직은 어려서(11살, 7살) 이렇다할 어려운 문제는 없이 사랑스럽게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깊은 행복감을 맛보기도 하며 삶의 힘을 얻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로 인해서 한 번도 마음아파 하거나 속상해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작은 아들은 한 번도 아빠에게 매를 맞은 적이 없지만 큰아들은 몇 번 심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는 무척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파서 한참동안 속상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의 효과가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체 매를 대지 않고 사랑으로 설득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아직은 「사랑의 대화」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그 방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이방법을 쓰기 위해 대화법에 대한 책도 좀 읽고 원리를 따라 실천해 보려고 한다.

우리가 손쉽게(?) 흔히 쓰는 방법인 「사랑의 매」의 방법 보다는 「사랑의 대화」의 방법이 훨씬 더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여기에 쏟으려고 마음을 다짐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3) ②

오묘한 육체

저자 : 폴 브랜드 (Poul Brond) 와 필립 안씨

각별한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읽어갈 수 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는데 이 유추(類推, analogy)가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책을 읽어가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자들은 책 이름을 '오묘한 육체' 원어로는 성경 본문 그대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시편139:14)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라 하였다.

이 책은 전공이 같지않은 의사와 문필가 두 사람의 협력작품이다.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셨던 부모님을 따라 인도에서 자라 소년기를 보내었다. 그의 부친의 다양한 선교사역을 보고 느끼면서 특히 그는 나환자 가운데서 일해야겠다는 소명을 느꼈다. 그는 의과박사가 되어 인도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면서 18년 간 인도에서 나병연구와 봉사로 헌신하였다. 그 후 그는 미국 루이지아나주 카르빌의 나병치료원에서 계속 나병환자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동안의 깊은 연구와 경험, 그리고 의학적이고도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얻어진 많은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특히 이러한 내용의 책을 내게 되었다. 필립 안씨는 캠퍼스 라이프의 편집장으로 그의 탁월한 문장력으로 이 책을 흥미있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 책은 특히 몸의 네 영역 즉 세포와 뼈, 피부와 동작의 오묘한 역할과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책의 속편으로 "그의 형상으로"(In His Image)에서 그는 또다른 주제 5 가지 즉 형상, 피, 머리, 영, 고통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다 ②

김 영 구

(목사·3교구담당)

회심(Conversion)과 회개(Confession)

이 양 우

(목사·전도위원장)

중생(Regeneration)이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으로서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중생한 영혼이 지, 정, 의(知, 情意)의 의식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심'(Conversion)이다. 그러나 회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회심의 역사에 협력할 뿐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의 불꽃같은 영광의 광채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깨닫고, (사6:5)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창12:1~9). 다시 말해서 그동안 사탄의 종노릇하던 죄악과 어두움,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 향하던 인생향로를 바꾸어 죄사함과 평화, 영생과 천국의 길로 백팔십도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회심'이다.

한편 '회개'(Confession)는 '목욕한 자'(중생한 사람)가 외출 후 발을 씻듯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해 주실 때,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숨김없이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주신다(요13:7~10, 요일1:9)

'회심'은 성도의 일생에 단 한번 일어나지만 '회개'는 평생 반복하게 된다.

이와같이 기독교는 인간 불행의 원인인 죄악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의 종교이다(요14:6) ③

중세 신앙시대

김 연 이

(전도사·편집위원)

중세는 장려한 로마시대와 빛나는 르네상스 사이에 낀 암흑의 1000년, 황량한 불모시대로 오해받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중세시대(5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가 낳은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은 대성당이었고, 가장 훌륭한 시가 묘사한 것은 지옥, 연옥, 천국이었다.

이단자나 비신자도 있기는 했으나 불가지론(不可知論)은 없었고 설령 있더라도 두려워서 입밖에 내는 사람이 없었다.

성직자는 어느 시대보다 많았고 정치, 경제, 철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교회가 세상에 미치고 있던 지배력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많은 국왕과 황제가 고위 성직자를 가정교사와 고문역할로 측근에 두고 있었다. 고립된 중세 사람들을 강한 유대로 결합한 것은 곧 기독교 신앙이었다.

이리하여 「중세」를 「신앙시대」라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질은 그들 속에 잠긴 오랜 중간기 다음에 고전시대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뜻이 담겨있다.

교회는 남아있는 로마문화의 유산을 보존하고 육성했다(라틴어 전승, 기록보존). 교회와 그 대표자들은 중세와 고전시대를 연결하는 유일한 유대가 되었다.

1. 세속적 권력으로 타락

교회는 중세 유럽에 있어서 최대의 정신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동시에 큰 세속적 권력이 되

었다. 세속권력의 행정관리를 대행하여 중대해가는 스스로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교회는 이욕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관료제도의 그물을 전 대륙에 폈다. 교회는 샤를마뉴가 기독교의 기치하에 정복한 부족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완미했던 색슨인에게 세레나 죽음이냐고 왕명으로서 물아세웠다.

샤를마뉴제국이 단편으로 해체되자 대신 대 봉건영주가 출현했다. 그들은 토지를 수여하고 신종의 의무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사교나 수도원장이 사면했을 때 그 후계자를 뜻대로 정할 권리를 주장하였고 봉신으로서의 성직자는 그 토지를 영적 세속적으로 지배하여 주군의 통치를 돕는 관리가 되어 있었다.

속인(俗人)에 의한 서임권(叙任權)이 널리 행사되자 그에 따라 기독교적 도덕과는 상충되는 악폐가 생겼다. 금전에 의한 교회 직위매매(Simony)가 성행하였고 사교관구를 거금을 들여 구입해서 휘하의 사제에게 서임료를 요구하므로써 밀친을 단단히 뽑았다.

9세기에 접어들자 성직자의 정결이나 독신주의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빈민에 봉사한다든가 자선을 베푸는 일은 따분한 일로 여겼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나 결혼식, 장례식 집행은 사제의 당연한 의무였으나 여기에도 보수를 청하게 되었다.

법왕적 자체도 짙은 타락의 길을 더듬고 있었다. 반 대파에 속하는 법왕을 살해하거나 독살하는 일도 드물지 않아서 법왕의 평균 재직기간은 불과 3년이었다.

2. 법왕(교회)과 황제(국가) 간의 쟁투

법왕 레오 3세에 의한 샤를마뉴의 대관은 그에게 로마제국의 서방에 대한 수장의 지위를 확립시켜 주었으므로 법왕이 주도권을 잡고 행한 이 대관식에 의해 샤를마뉴에 관한 최종적인 발언권은 법왕직에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교회와 국가간의 논쟁은 11세기까지는 폭발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타락한 악명높은 요하네스 12세를 오토황제가 파면하고 자기가 선택한 법왕을 대신 앉히자 선거되고 성별된 법왕에 대한 승인여부의 권리를 부당하게도 황제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교회와 국가관계는 크게 흔들렸다.

재빨리 개혁에 착수한 니콜라우스 2세의 1059년의 칙서에 의해 법왕의 선거권은 추기경단의 권한으로 되었고 법왕의 개인적인 사절이었던 법왕특사의 지위가 대폭 강화 되었고 파문하거나 나라전체를 성무 정치

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법왕 그레고리우스 7세 때 분쟁은 공공연한 전쟁 상태로 들어갔다. 즉위 2년만인 1075년 그가 막료앞으로 보낸 「법왕칙령」이 중세 유럽을 밀바닥부터 뒤 흔들게 되었다. 칙령은 교회의 불가류(不可謬)와 법왕의 지고성(모든 군주로 하여금 그 발에 입맞추게 하는 유일한 인간)을 역설했고 세속 권력의 법왕에 대한 복종의무와 국왕이나 황제 파면권을 법왕에게 허락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황제는 폐위를 선언하고 법왕을 황제의 폐위를 선언하는 법왕과 황제간에 갖가지 충돌과 권력 교체가 있어서 때로는 법왕이 이기고 때로는 황제가 이겼다. 이 쟁투는 법왕직과 제국이 서로 우월을 다툰 논쟁으로 6세기만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유럽은 이미 어느쪽도 원치않게 되었고 여기에서 새 형태의 권력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국민국가이다.

3. 십자군 원정

인간이 행한 숭한 전쟁 중에 신앙을 위한 전쟁만큼 영광적으로 수행된 것은 없다. 그러한 성전(聖戰) 중에도 중세의 기독교 십자군 전쟁(1096-1291년 8차 원정)만큼 치참하고 또 오래 끈 것도 없다. 11세기말에서 13세기 말에 걸쳐 중세 사람들의 마음은 십자군에 빼앗겼다. 그러나 끝난 뒤에 남은 것은 환멸과 혼란 뿐이었다.

십자군의 동기와 대의명분은 예루살렘의 기독교 성지를 마호메트 이교도의 지배로부터 탈환한다는 것이었으나 십자군 원정의 뒤에는 실리적인 타산도 얹혀 있었다. 로마교회는 동방에 있는 최대의 경쟁자는 그리이스 교회의 영역에까지 그 지배를 넓히는 데 있어서 십자군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유럽의 왕과 봉건 영주들은 새땅과 재원을 획득할 것을 기대했고 귀족들은 젊은 아들들의 배설구를 찾고 싶어 했고 성직자들은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 줄것을 기대했다.

십자군에 가담한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과거의 죄를 보상하는 회개의 사면이나 채무연기등의 교회의 약속에 희망을 걸었다.

십자군은 성지를 회복했으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던 기간은 불과 100년도 안되었다. 십자군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서구의 힘을 동방에까지 뻗치려던 꿈도 실현하지 못하였다.

4. 중세인들의 신앙관

인간에 대한 가장 큰 구원은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말로 다 할수 없을만큼 인간미 넘치고 자비로운 성치녀는 언제나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을 용서케 하고 무서운 위험에 직면한 자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다.

마리아에게만 기도를 드리는 성직자도 있었고 프랑스의 여왕을 비롯한 아들복이 없는 많은 부인들은 수태를 기원하기 위해 마리아의 성소를 찾아 긴 여행을 하였다.

최후의 심판날은 항상 절박한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잘 알려져 있었다. 어느 영혼이나 저울에 올려져 그 공과 죄에 따라 응분의 상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죄인은 지옥에 인계되는데 이 지옥에서는 불에 태워지는 자도 있고 뱀에 물리는 자도 있다고 생각했다.

5. 결어

중세는 신앙시대라고 불리어지는 것에 비해 참된 신앙은 찾아볼 수 없던 시대이다.

교회는 우선권 문제(Priority)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여 영혼구원보다는 교권과 교세에만 몰두하였다.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정치상 법률상의 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뜻했으므로 중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도 없이 교회에 머물며 성모 마리아에게 그들의 구원을 걸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참된 헌신(commitment)도 없었다. 많은 사람이 십자군 원정에 헌신하였으나 모두가 잘못된 목적에서였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성령은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아들인 신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똑같이 비롯된다는 것을 설명키 위해 '필리오코에'(아들에게서도 역시)라는 말을 공인 니케아 신조에 첨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샤를마뉴의 업적은 높이 살만하다. 바로 이 교의가 교회를 라틴, 그리이스의 둘로 분열시켰다.

다성음악, 성전건축의 걸작, 단체와 보카치오, 지오토와 프란체스코의 작품은 르네상스의 선구가 되기도 하였으나 저속과 신성, 무지와 박식, 수성(獸性)과 기사도 정신,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도구(拷問道具)와 섬세한 예술작품이 공존한 시대가 곧 중세시대였다.

교회 소식



장로 구름기둥 모임 (장로 수양회)

하는 부부대학에는 518쌍(1,036명)이 제10회 장로 수양회가 지난 6월 6 등락하였고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기일(월) 충현기도원에서 공로, 명예, 시독교와 가정윤리', 홍준표박사 (중앙대무, 협동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속 4:6)라는 주제로 모인 장로 수양회에는 70여 명의 장로가 참석하였고 초빙된 강사는 본 교회 이종운 위임목사님이셨다.



홍해작전 장로구름기둥 (장로수양회)에서 강의하시는 이종운 위임목사님 (기도원)

충현 부부대학

1988년 제1회 충현부부대학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첫날은 중예배실)에서 실시되었다.

부부가 함께 등록하고 수강하여야

충현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사여서 예상보다 50%가 더 출석하였고 참석한 자들의 열심이 대단하여 매일 1,000여명이 강의시작 전부터 찬송, 율동,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부부간의 정다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부부대학에는 불신가정이 3가정, 남편이 안 믿는 가정이 4가정, 타교회 성도 51가정이 참여하였다.

교회는 최 신생 부부 (김원웅, 김규희)와 최 연장 부부 (신원호집사, 장기옥권사)와 불신가정과 아내만 믿는 7가정에도 선물을 증정하였다.

년령별 참가 분포는 20~30대가 295명, 40~50대가 630명, 60대 이상이 39명이었다.

앞으로 1년에 2차로 실시할 것을 연구중이다.

70인 전도요원 10기생 수료

지난 5월 4일(수) 오후 2시 선교관 304호실에서는 '제10기 전도요원 수료식'이 있었다.

전교인 전도요원화의 일환으로 70인 전도요원 제10기 교육훈련은 지난 3월 17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8주간 실시되었고 이날 수료대상자 47명에 대하여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수료증 수여가 있었다.

초청설명회

지난 5월 13일(금) 오후 7시 30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는 '88 세계복음화대성회 주최로 '88 세계복음화대성회 전도훈련 초청설명회가 있었다.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라는 표어아래 1,000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본교회 이종운 위임목사님은 갈 6:1~5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본 교회 김정인 원로목사님의 인사와 축도가 있었다.



세계복음화 대성회 전도훈련 초청 설명회에서 말씀전하시는 이종운 위임목사님 (63빌딩)

홍해작전 각 부장 임명장 수여

지난 5월 29일(주일)저녁예배 후 본교회 이종운 위임목사님은 홍해작전 기간동안 수고하게될 족장 12명, 백부장 79명, 오십부장 656명, 십부장 616명

등 총 1,36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였다.

■ 연합기도회

지난 5월 2일(월) 오후 7시 30분 본 교회에서는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한국교회수호 범교단 대책협의회 주최로 있었다.

이날 본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님은 암5:4~15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교역자 초청설명회

지난 6월 7일(화) 오전 11시에 '88서울올림픽 전도를 위한 교역자 초청설명회 및 기도회가 '88서울올림픽 전도협의회 주최로 소망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본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였다.



올림픽 전도를 위한 교역자 초청 설명회 및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인 원로목사님 (소망교회)

■ 할렐루야 합기도단 평신도 선교사 파송예배

지난 5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체육인교회에서는 세계체육인선교회(총재 김창인 원로목사) 주최로 할렐루야 합기도단 정문수 평신도 선교사 가봉(아프리카) 파송식이 있었다.

이날 김창인 원로목사님은 '우리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88세계복음화 대성회

지난 6월 10일(금)부터 22일(수)까지 '88세계복음화 대성회 준비위원회 및 여성분과 주관으로 서울올림픽 성공과 지역복음화를 위한 연합부흥성회 및 기도대성회가 열렸다.

본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님(세계복음화 대성회 총재)은 서울, 광주, 대전, 청주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 수화 통역 예배

교회는 지난 유월 첫째 주일부터 농아들을 위한 수화 통역 예배를 신설하였다(3부 예배).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여 복음에서 소외되고 교회를 찾지 못하였던 농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수화 통역은 밀알 선교회(이사장 이종윤 위임목사)의 한미경 선생이 수고하고 있다.



3부예배시 수화통역 모습

■ 88년도 제3차 성례식

1988년도 제3차 성례식(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 문답이 지난 6

월 11일(토)에 있었고 6월 15일 수요일에 1·2부 예배 학습, 세례식이 있었다.

성례식 문답자 수는 학습 38명, 세례 44명, 유아세례 12명, 입교 5명, 개종 2명 등 총 101명이다.

한편 성찬식은 6월 19일(주일) 5부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찬자 수는 6,535명이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유아세례시 장로 1명이 1가정을 인도하여 중강대상으로 올라가 위임목사님이 직접 어린아기를 일일이 품에 안고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식은 수세자들이 앞으로 나가 정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받았다.



제3차 성례식에서 유아세례를 베푸시는 이종윤 위임목사님

■ 수요일예배 2부로

1988년 6월 1일(수)에 충현교회 35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수요일예배가 2부(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7시)로 실시되었다.

1부 예배는 저녁에 거리가 멀어서 나오지 못했던 분, 저녁시간에 출입이 어려운 노약자 등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1,000여 명이 모였다.

중예배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여성 찬양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이르러는 은혜의 절정을 이루었다. 성도들은 낮에 수요일예배를 드렸다는 기쁨과 말씀의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여 시종 기쁨이 넘쳤다.

■ 중등부 구름기둥모임(중등부 음악회)

제5회 중등부 음악회가 지난 6월 11일(토) 오후 4시 30분 본 교회 비디오실에서 있었다.

1부 예배를 드린 후 2부에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등 여러가지 악기의 연주와 독창, 중창, 합창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새가정부 구름기둥모임(새가정부 특강 및 수련회)

새가정부에서는 지난 5월 15일(주일) 선교관 102호실에서 양은순교수(총신대)를 모시고 '가정의 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또한 지난 6월 6일(월) '감사하는 가정'이라는 주제하에 제5회 새가정부 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운영목사의 강의와 그룹도의 및 발표, 친교, 물물교환 등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흥해작전의 성공을 위한 기도 시간도 가졌다.



흥해작전 구름기둥(새가정부 수련회)에서 생할용품을 서로 나누는 모습

■ 보이स्क아웃 야영자 방문

제3부 찬양대에서는 우리교회의 표어가 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를

새긴 비석을 서삼릉에 위치한 보이स्क아웃 야영장 기독교 코너에 기증(87년 8월) 한 바 있어 지난 5월 22일(주일) 50여 명의 대원이 야영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

■ 지교회 방문

제2남전도회의 임원(13명)들은 지난 5월 8일(주일)에 서현교회(오창남목사) 설립 9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립 및 지원 방한에 대하여 논의하고 돌아왔다.

또한 여전도회 한나 10지회의 임원(28명)은 지난 5월 29일(주일)에 부현교회(이규인목사)를 방문하여 그곳의 교우들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었고 한나 3지회에서도 6월 5일(주일)에 제현교회(허상운목사)를 방문하여 위로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지원처 방문

여전도회 한나 9지회의 임원(20명)들은 지난 5월 4일(수) 국립경찰병원(이금하목사)을 방문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나 6지회의 임원(18명)들도 지난 5월 7일(토)에 춘천소년원(박양덕전도사)을 방문하여 선풍기 10대, 라면 10박스, 떡을 준비하여 전달하고 위로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다.

■ 세미나 실시

3남 전도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선교관 401호에서 정홍식집사를 모시고 '크리스찬의 경영관리'란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또한 6월 19일(주일) 동일장소에서

오후 2시 30분에 민중기(서울대 강사) 선생을 모시고 '크리스찬의 정치이념'이란 주제의 특강도 있었다.

■ 성경책 전달

진도위원회 도시전도부에서는 한나·에스터 여전도회 후원으로 지난 5월 21일(토)에 월일교통 신우회에 성경책 50권을 전달하였다.

■ 의학강좌 실시

의료전도회에서는 지난 5월 29일(주일) 오후 2시 중매실에서 손근찬박사(국립의료원 제2진료부장)를 모시고 '알레르기성 질환과 그의 예방책'이란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 건축현장 일꾼 식사대접

한나 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에, 에스터 연합회에서는 지난 6월 9일에 본 교회 건축현장 일꾼들에게 각각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 88년 계절학교(여름) 일정 안내

부별구분	기 간	강 사	장 소
영아부	8.23(화)~24(수)	정소영	선102, 103호
유치부	7.18(월)~20(수)	정연희	교107, 205호
유년부	7.18(월)~20(수)	김연이	교307, 212호
초등부	7.18(월)~20(수)	남창우	중예배실
소년부	7.18(월)~20(수)	김성운	본당
중등부	7.25(월)~28(목)	김준태	사내산
고등부	7.25(월)~28(목)	이성근	충현기도원
대학부	7.12(화)~15(금)	김근수	충현기도원
청년부	7.21(목)~23(토)	신예철	충현기도원
장년2부	8.19(금)~20(토)	김준태	충현기도원
장년1부	8.15(월)~16(화)	이성근	충현기도원
소망부	8.26(금)~27(토)	김영구	충현기도원
직전부	8.4(목)~6(토)	윤용규	충현기도원

충현도서실 안내



활짝 문을 연 도서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충현도서실에서는 신앙성숙에 도움이 될 책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해 은혜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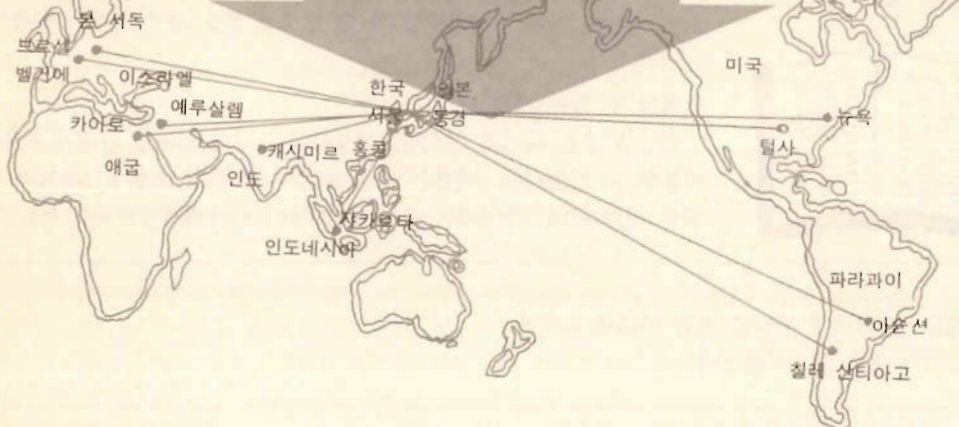
중등부(같은 나이의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도서실 안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9:30부터 오후 6:00까지(월요일은 제외)이며, 주일에는 오전 8:30부터 저녁예배전까지입니다.

소장된 책들 중 최근에 구입한 책을 아래에 소개합니다(책명/저자 혹은 편자/출판사)

- 그리스도인 인간관계(학습자용)/한명순 최대순 等編 / 크리스찬문화원
- 그리스도인 인간관계(인도자용)/한명순 최대순 等編 / 크리스찬문화원
- 하나님 나라와 예수그리스도 1권 / 프랜시스 브라이쉬 / 나침판
- 하나님 나라와 예수그리스도(2권 / 프랜시스 브라이쉬 / 나침판
- 동아연감('88)/동아출판사, 편/동아출판사
- 정치와 종교/紫田敏夫, 編/교양사 禿
- 요한복음Ⅲ / A. W 핑크 / 엠마오
- 요한복음Ⅳ / A. W 핑크 / 엠마오
- 현대와 크리스찬의 지성 / 이종윤 / 엠마오
- 로마서 공부! / 윤종하 / 실로암
- 구약 연구 입문 / 하워드 F. 보스 / 엠마오
- 디도, 빌레몬서 / 캠벨 물간 / 나침판
- 교회와 국가 /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편 / 교양사
- 한국의 7대 교회 / 존 바그 / 종로서적
- 초대교회사 / 유스토 L. 곤잘레스 / 은성출판사
- 중세교회사 / 유스토 L. 곤잘레스 / 은성출판사
- 이렇게 살아라 / 캠벨 물간 / 풍만
- 눈보라속에 피어난 사랑아 / 규장문화사
- 바울성경연구시리즈 로마서~고린도 / 바울
- 바울성경연구시리즈 갈라디야~히브리서 / 바울
- 바울성경연구시리즈 야고보~요한계시록 / 바울
- 디자인 컷 자료집, 1 / 한국교육산업
- 디자인 컷 자료집, 2 / 한국교육산업

- 제3의 물결 / 토플러 / 영광출판사
- 한국문화와 기독교 윤리 / 현영학 외 / 문학과지성사
- 요한복음강해Ⅲ / 제임스 조이스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예수님의 비유 / 로버트 H. 스라인 / 새문출판사
- 교회와 선교 / 서정운 / 두란노
-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주는 교훈 / 이동원 / 나침판
- 복있는사람 外 2권 / 지원상 / 컨콜디아사
- 사랑과 행복의 대화 / 양은순 / 두란노서원
- 이렇게 사귀라 / 이동원 / 나침판
- 신앙 위인 전기 시리즈 전 8권 / 신앙위인전기 편찬위원회, 편 / 한국문서선교회
- 1. 언더우드·아펜젤러·마펫 / 신앙위인전기 편찬위원회, 편 / 한국문서선교회
- 2. 무디·나이팅게일 / 신앙위인전기 편찬위원회, 편 / 한국문서선교회
- 3. 요한 웨슬레·헬렌켈러 / 신앙위인전기 편찬위원회, 편 / 한국문서선교회
- 4. 어거스틴·헨델·진다르크 / 신앙위인전기 편찬위원회, 편 / 한국문서선교회
- 5. 윤 칼빈·프랜시스·메리슬렛스 / 신앙위인전기 편찬위원회, 편 / 한국문서선교회
- 6. 윤 빈연·마틴루터킹 / 신앙위인전기 편찬위원회, 편 / 한국문서선교회

선교지 소식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13,677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3,000개이다. 3,000마일에 이르며, 중국, 인도, 소련, 미국에 이어 인구가 다섯번째로 많다. 이들은 수백의 다른 인종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독특한 언어와 문화들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종교가 만나는 장소'로 알려져 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교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독교, 힌두교, 불교도 함께 존재한다. 1945년 공화정치가 설립된 이후 무종교는 불법이 되었으며 공산주의자로 간주한다.

- 수도: 자카르타(인구 약 820만 명)
- 면적: 190.4만 km²(한반도 9배)
- 인구: 1억6천만 명(세계5위)
- 종교: 회교 87.1%, 힌두교 2.1%, 불교 1.8%, 기독교 10%
- 1인당 국민소득: \$650(85)
-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 다습
- 사회관습: 기본적으로 회교예율에 반하지 않게 행동함. 악수나 물건을 수수할 때 오른손 사용함(왼손은 부정시 함)

기독교 현황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인 1,500만 인도

네시아 기독교 공동체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1978년 정부가 선포한 두 법령(Decree 70 and 77)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하여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 두 법령은 어떤 종교에 의한 공공연한 개종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회교에 대한 기독교 선교 노력을 가로막는 강한 압력이 된다.

서부 자바의 수단인들은 강력한 회교도로서 기독교에 대해 큰 적개심을 갖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부와 중앙 자바의 자바인들, 특히 시골 거주민들은 복음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동부 자바의 예외적인 집단은 마두라의 작은 섬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며 그들을 복음화하려는 시도가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에 의해 추방당하며, 대개는 그 섬을 떠나야 한다.

총현 선교사

1. 자카르타 서만수 선교사(1970. 8. 27 파송) (활동 사항)
 - (1) 자카르타 한인교회 목회
 - (2) 원주민선교(개척교회 - 정글오지에 46개 개척, 정글순회전도 - 개척전도자 파송, 교아원 지원)
 - (3) 문서 선교(현지 성경, 전도지 제작 배포)

(4) 복음적 교단과 교류

(5) 교육선교(기독교종합대학-암본섬, 기독교사범대학-자카르타)

'88년 1/4분기 선교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선교부가 4월1일을 기하여 늘어나는 사역량에 따라 기구를 개편 증설하였다. 현재의 명칭은 인도네시아의 한국 선교회(Korea Mission of Indonesia)로 산하 4개 부서가 있다.

1) 오지 선교부 2) 해양 선교부 3) 해양 선교부 4) 한인 선교부

증설된 기구로는 해양 선교사역으로서 선원 및 여객선교, 선교의 집 운영등으로 인도네시아를 출입하는 국내 및 외국선박, 승무원을 상대로 하는 사역으로서 동구의 공산권 및 중공, 북한선박에까지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시설과 운영은 서독 선교부에서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 선교부와와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해양 선교사역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임 사역자 채용을 비롯하여 매달 600불의 운영비가 필요하게 된다. 제 일차로 한국으로부터 백설탕을 싣고온 "두양엘리트"호가 지난 3월10일 자카르타에 입항하여 25일까지 머무는 동안 동 선박을 방문하여 기도회를 개최하고, 선원을 집에 초대하여 친교를 갖고 성경, 찬송가등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글 오지 사역은 현재 56개처에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지원하며 자립하도록 노력중에 있다. 건축비 및 부대시설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늘어나는 선교사역에 따른 동역자를 위하여
- 선교사 내외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정글 개척사역과 한인교회 사역을 위하여

주소

Rev. Paul M. Suh
Korea Mission of Indonesia
P.O.Box 2355 JKT/Tel.548-1313

1987년 6월16일 방문비자로 자카르타에 도착한 윤태곤 선교사는 5개월 18일만인 12월4일에 선교사역을 위한 노동 및 체류허가와 일체의 수속을 마치고 본국에서 대기중인 가족을 초청하였던바, 3월2일 자카르타에 도착하였고 여행증명등 필요한 수속을 마친 후에 3월8일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임시인 이리안자야 확확에 부임하였다.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서만수선교사)에서는 자녀 교육용으로 T·V수상기(멀티시스템) 1대와 비디오 테크(멀티 시스템) 1대를 선물하여 오지에서도 한국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어려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24일 현지인 국민학교에 입학한 은선이와 문영이는 말도 통하지 않는 새까만 아이들 가운데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와서는 알파벳 쓰기 연습과 인도네시아어 책읽기 연습에 정신이 없다. 다행히 현지인 아이들이나 시설이 엉망인 학교에도 별 거부감을 느끼질 않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꼭 감사한 일이다. 앞으로 저희가 언어, 문화, 풍속등 모든면에 익숙해 지기까지 더욱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2/4분기 사역을 위한 언어, 신학교 강의준비, 구체적인 계획등을 위하여
-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하여(동물들을 잡아먹는 악어떼가 밤마다 울어댈 때 어린 은선이와 문영이가 한국생각을 함)
- 어린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주소

Rev. Tae-Gon Yoon
P.O.Box 18 Fak fak
IRIAN JAYA Indonesia
Tel 2170 Fak fak

2. 이리안자야 윤태곤 선교사(1987. 2.22파송) (활동사항)

- (1) 서부 뉴기니아(이리안 자야)지역 선교
- (2) 신학교 강의(성경고등학교 수준)
- (3) 현지 교단 지도자들과 협력 및 지도

교 우 동 정

새교우

역삼구역	채용석	논현구역	김정의	잠실구역	한명희	신월구역	최현자	화성구역	김익수
역삼구역	채금주	대치구역	박진용	잠실구역	김종성	시흥구역	오세준	장안구역	김정철
역삼구역	이현경	대치구역	이영애	잠실구	박현주	성산구역	이대희	장안구역	정정자
역삼구역	김태기	봉천구역	이경희	가락구역	황선미	성산구역	김혜은	상봉구역	유영선
역삼구역	윤문자	노랑진	고관영	임사구역	오경옥	홍인구역	정연희	상봉구역	전영애
역삼구역	이수인	신길구역	최인주	성내구역	이해숙	제기구역	주수현	문정구역	곽희순
역삼구역	최성락	진관내	윤주영	옥수구역	소은숙	잠실구역	강미영	가락구역	정 아
개포구역	신혜련	망원구역	김갑숙	옥수구역	표영국	문정구역	신춘숙	상일구역	장숙희
개포구역	김정임	정신구역	손준환	역삼구역	강명자	상일구역	장숙희	잠실구역	신현주
개포구역	정정임	정신구역	심홍자	역삼구역	전순옥	성내구역	우선옥	하왕구역	조영근
논현구역	김진달	정신구역	김선영	서초구역	김유제	행당구역	이명자	한남구역	이상례
논현구역	조선영	정신구역	김창순	대치구역	노향숙	금호구역	오미라	한남구역	김예현
상도구역	김영이	우이구역	송은경	대치구역	김영민	율지구역	이동희	내곡구역	이찬옥
안양구역	정동식	우이구역	이장희	대치구역	한준동	역삼구역	김정하	역삼구역	권행은
목동구역	김혜연	미아구역	배미영	논현구역	김문섭	역삼구역	이남해	역삼구역	전권준
부천구역	민홍기	미아구역	이요섭	논현구역	홍경숙	역삼구역	손경희	역삼구역	권숙자
부천구역	장용숙	제기구역	임형선	논현구역	강길원	역삼구역	김순영	역삼구역	김분선
수송구역	유정자	둔촌구역	성재현	논현구역	이정자	서초구역	마경자	역삼구역	박숙희
아현구역	김철중	둔촌구역	장미자	개포구역	황재현	서초구역	이현숙	서초구역	오세웅
파주구역	박태홍	둔촌구역	장미자	봉천구역	박용수	서초구역	김용환	신사구역	김숙자
수유구역	박선희	둔은구역	성린다	봉천구역	이병우	서초구역	노미영	신사구역	박명주
공릉구역	강인석	성수구역	김남희	당산구역	정숙자	개포구역	최종란	신사구역	최병례
공릉구역	이정숙	광희구역	임병산	영문구역	현지연	개포구역	김혜숙	신사구역	박새롬
장안구역	손은숙	한남구역	전경숙	영문구역	공경옥	개포구역	김소희	대치구역	김희선
신설구역	방화미	서초구역	이윤희	상계구역	이창용	개포구역	김소현	대치구역	김정림
신당구역	이우순	서초구역	이선희	목동구역	박상유	개포구역	김민수	대치구역	김준규
신당구역	이진아	역삼구역	오규자	목동구역	한영미	삼성구역	고선일	대치구역	김은규
고덕구역	팽계창	역삼구역	송수현	전호구역	전인환	삼성구역	박정란	대치구역	김준규
마천구역	강석훈	역삼구역	조혜자	전호구역	박숙희	반포구역	김미향	목동구역	김원웅
방이구역	조현아	역삼구역	장은순	광주구역	오준원	반포구역	양계환	독산구역	김찬원
잠실구역	이석재	역삼구역	이영호	남창구역	곽대지	반포구역	최상여	구로구역	신상수
가락구역	김인균	논현구역	김영화	만리구역	강기원	논현구역	홍 계순	영문구역	최옥희
가락구역	우언희	일원구역	박정희	역삼구역	오혜섭	논현구역	강민호	북아현	김은수
한남구역	홍봉용	대치구역	방 의	역삼구역	최종남	논현구역	이재상	신공덕	장영준
한남구역	정재호	대치구역	김필숙	역삼구역	김정집	논현구역	이경희	응암구역	허기택
역삼구역	조옥수	봉천구역	허종해	역삼구역	선춘화	신림구역	이내형	수유구역	김일환
역삼구역	김준식	수택구역	최희정	역삼구역	장홍순	봉천구역	이갑일	미아구역	조문행
역삼구역	김상식	목동구역	이병철	역삼구역	이점순	봉천구역	정혜영	미아구역	김옥화
역삼구역	이순례	목동구역	이명순	역삼구역	안명자	방배구역	김상훈	미아구역	조병국
역삼구역	유순화	홍 의구역	이현영	역삼구역	박기자	방배구역	조영옥	면목구역	하천호
역삼구역	정오길	신수구역	황대영	세곡구역	이유미	방배구역	양윤정	잠실구역	김 영
역삼구역	원순덕	광주구역	김세환	서초구역	노미영	현저구역	이혜정	잠실구역	김현숙
역삼구역	김명선	광주구역	김수정	개나리	한정란	신수구역	박정순	잠실구역	이찬규
역삼구역	김혜란	광주구역	오준원	중현구역	김분선	신수구역	강성민	잠실구역	이주영
성남구역	이연식	하일구역	이순옥	신사구역	정재준	신수구역	강민희	화양구역	박현익
논현구역	오광열	하일구역	이상열	논현구역	김봉희	미아구역	윤영심	화양구역	전은희
논현구역	박은하	잠실구역	유일상	상도구역	박현숙	미아구역	임기순	금호구역	고기순
논현구역	박정규	잠실구역	고숙희	봉천구역	염부곤	남양수	안혜숙	예관구역	장진미

결혼

▲박현수군과 오성순양(오진국장로 이명자집사 딸) 4월 26일 12시
 ▲전승훈군(김춘경권사 아들 대학부 교사)와 이정란양 4월 30일 오후 2시
 ▲박용진군(조원희권찰 아들)과 이명희양 4월 30일 오후 2시
 ▲고세경군과 송선란양 (송주호장로 오순탄권사 딸) 5월 3일 오후 1시
 ▲강대욱군과 박은희양 5월 5일 12시
 ▲김상규군과 인남순양(인한석씨 박복동집사 딸) 5월 5일 오후 1시
 ▲김영철군(백옥심집사 아들)과 윤영란양 5월 5일 오후 2시
 ▲정조영군(이옥기권사 아들)과 김정숙양 5월 5일 오후 3시 30분
 ▲최우진군(최대원장로 남수현권사 아들)과 양화연양 5월 7일 오후 2시
 ▲박형민(박영씨 김명복집사 아들)과 이미향양 5월 9일 오후 1시
 ▲유수봉군과 윤명숙양(윤선기씨 이순화권사 딸) 5월 10일 12시
 ▲김진명군(김도화집사 아들)과 박선예양 5월 10일 오후 1시
 ▲최홍식군과 강유희양(강협장로 조성금집사 딸) 5월 11일 12시
 ▲김용현군(변옥진집사 아들)과 김연숙양 5월 11일 12시 30분
 ▲강훈군(강복연씨 박종민권사 아들)과 이춘영양 5월 11일 오후 2시
 ▲함갑진군과 심미란양(중등부교사) 5월 12일 오후 2시
 ▲안재환군과 김미영양 (김학래집사 김선희권사 딸) 5월 14일 12시
 ▲김성근군과 송미향양(송재득씨 김종열집사 딸) 5월 14일 12시
 ▲김경수군과 최현주양 (박명엽권사 딸) 5월 14일 오후 1시 30분
 ▲정관섭군(4 교구)과 이성희양 5월 14일 오후 2시 30분

▲박찬원군(박찬섭집사 동생)과 노회숙양 5월 14일 오후 3시
 ▲김석준군(손홍숙집사 아들)과 조영근양 5월 14일 오후 4시
 ▲한영수군(한경선 김학조집사 아들)과 황선미양(가락구역) 5월 17일 12시
 ▲김원웅군(김홍석씨 아들)과 김규희양(김현민씨 딸) 5월 20일 오후 2시
 ▲양훈군(양재철씨 정명섭권사 아들)과 장희정양 5월 21일 오후 2시
 ▲신재동군과 신은애양 (신재성집사 여동생) 5월 21일 오후 2시
 ▲백 식군(백학도 권기순성도 아들)과 정숙영양 5월 21일 오후 3시
 ▲사문진군과 이해봉양(마장구역 송갑순집사 딸) 5월 21일 오후 4시
 ▲최훈구군과 정정미양(본 교회직원) 5월 23일 오후 1시
 ▲김종식군(부찬양대원 김희술성도 아들)과 이해경양(부찬양대원 이병우 장로 허주호집사 딸) 5월 23일 오후 1시
 ▲김석진군과 김승희양 (윤정애집사 딸) 5월 26일 오후 2시
 ▲이창용군(상계구역)과 김명순양(직전부 교사) 5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이홍우군(김영애집사 아들)과 이경희양 5월 28일 오후 2시
 ▲이광훈군(이근배집사 김은순권사 아들)과 양옥주양 5월 28일 오후 2시
 ▲김상열군(김향권장로 이영숙권사 아들)과 노정숙양 5월 28일 오후 2시
 ▲허 상군과 박성애양(박명열씨 박현숙집사 딸) 5월 28일 오후 2시
 ▲김준태군과 백희섭양(백두영씨 김영애권사 딸) 5월 31일 오후 1시
 ▲이삼호군과 우기옥양(우병춘집사 딸) 6월 4일 오후 2시 30분
 ▲장경철군(장운군집사 아들)과 김명

숙양 6월 4일 오후 1시
 ▲김정근군(최연옥집사 동생)과 변운숙양 6월 6일 오후 2시
 ▲임철우군(김순남성도 아들 신사구역)과 이신자양 6월 8일 오후 2시
 ▲강 훈군(강복연성도 박종민권사 아들)과 이춘영양 6월 11일 오후 2시

별세

▲권복순성도(부천6구역 신봉애집사 모친) 4월 7일 별세
 ▲이필호성도(석관동 윤옥중집사 부군) 4월 10일 별세
 ▲노영여집사(박인세장로 모친) 4월 15일 별세
 ▲김광수성도(양지3구역 김명자집사 부군) 4월 19일 별세
 ▲김상순성도(서양순권사 모친) 4월 28일 별세
 ▲곽상권씨(상계2구역 전순자권사 부군) 5월 1일 별세
 ▲조남준집사(응암1구역 김영옥권사 부군) 5월 12일 별세
 ▲최규삼성도(미도1구역) 5월 15일 별세
 ▲강철원성도(노현7구역) 5월 16일 별세
 ▲양원방성도(일원구역) 5월 16일 별세
 ▲임순화성도(신당구역 이준기성도 부인) 5월 17일 별세
 ▲현주분성도(갈현구역 박철훈장로 이경희집사 모친) 5월 19일 별세
 ▲전규동씨(8교구 한외조집사 부군) 5월 29일 별세
 ▲이점순성도(홍익1구역 이기근집사 여동생) 6월 3일 별세

5·6월의 행사

□ 교회행사

6월 6일~7월 15일 / 홍해작전

□ 당회

6월 1일 / 5월 정기당회

6월 29일 / 6월 정기당회

6월 6일 / 제10회 장로수양회

□ 제직회

5월 1일 / 5월 정기제직회

6월 5일 / 6월 정기제직회

□ 예배위원회

6월 19일 / 제3차 성례식

□ 교육위원회

5월 19일~6월 9일 / 충현부부대학

6월 6일 / 새가정부 수련회

6월 11일 / 제5회 중등부 음악회

□ 교구위원회

6월 23일 / 교구별 찬송가 경연대회

□ 전도위원회

5월 4일 / 제10기 70인 전도요원 수료식

□ 출판국

5월 20일 / 이사야 제6권 발행

5월 29일 / 충현의 만나 6월호 발행

6월 26일 / 월간 충현 5·6월호 발행

6월 26일 / 충현의 만나 7월호 발행

□ 감사

6월 15일, 22일 / 정기 감사

편

집

후

기

5월, 가정의 달에 실시된 제1회 부부대학이 예상밖으로 성황을 이루어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강의를 특집으로 게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실제적이고 영적인 이 강의가 경건하고 건전한 가정형성을 이루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또한 농촌에서도 보기도문 8남매 (3남5녀) 가운데 5남매가 한 울타리 안에 모여살면서 부모공경, 형제간에 우애를 다지는 최명환 장로님 가정을 탐방하여 단란한 모습을 소개하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다.

파란 색깔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인다. 그러나 대상 자체가 파랗거나 붉은 것은 아니다.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본 것만이 정확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제3자의 눈을 통해 돌아볼 수 있다면……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8년 5·6월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8년 6월 24일 인쇄

1988년 6월 25일 발간

발행인/이	종윤
편집인/김	차생
주간/김	장근
편집장/이	응선
편집위원/조	영길
	경익
	윤규
	최석
	조선
	손경
	김연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일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성공의 땀가를 가지고 온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힘의 원동력이 된다.
노는 시간을 가져라.
항상 젊어지는 비결이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혜의 원천이 된다.
사람과 친근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복의 길이 된다.
꿈을 보는 시간을 가져라.
너의 무거운 짐을 별에 이어 놓는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져라.
내 중심으로 살기에는 하루는
너무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웃는 시간을 가져라.
영혼의 음악이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투자가 된다.
「작가 미상」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의 죄와 허물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약속과 축복의 현장

